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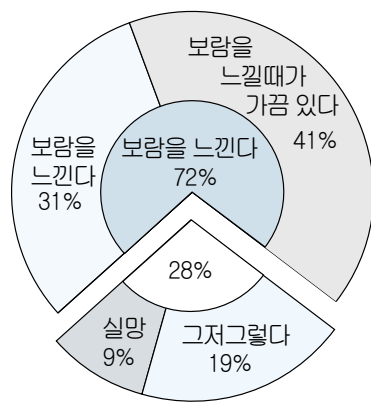
로타리코리아 창간 300호 발간 기념 - 제1회 전국회원 여론조사

(1998년 12월호 설문지)

한국 로타리안
보람 느낀다 72% 失望 느낀다 9%

週會 거르지 않고 참석 45%, 가끔 참석 24%

17지구 1,000클럽 뜨거운 反響, 높은 응답 回收率 24%



한국로타리 회원들은 현재 로타리안 생활에 있어 72%가 대체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 반면, 9% 회원은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45% 회원은 거의 거르지 않고 주회에 출석하는가 하면, 로타리안 31% 회원이 매달 두세 번 정도 주회에 참석하며, 한달에 한번 이하로 드물게 참석하는 회원이 24%나 된다.

이와 같은 한국로타리 회원의 실상은 우리 로타리 역사상 처음으로 1998년 12월에 전국 39,042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本誌 300호 紀念 '전국회원 輿論調査(여론조사)' 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국로타리 발족 70년만에 전산에 의한 회원관리에 이어, 이번 처음으로 컴퓨터 입력으로 시행된 본격적 여론조사는 당초 전국 회원 5% 정도의 응답을 예상 기대했던 것이나, 뜻밖에도 17地區에서 합계 9,268 회원 응답으로 24%의 놀라운 回收率(회수율)을 보여 로타리 생활 및 로타리코리아 잡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창간 300호 발간기념 - 제1회 전국회원 여론조사

조사 방법

총회원 39,042명 중 응답 9,268명(24%)

검색작업 한빛정보 집계

한국로타리안 39,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本誌 300호 기념 '전국 로타리 회원 여론조사' 는 1998년 연말 전국 일제히 동시에 실시되어 9,268명 회원이 참가하여 24%의 응답회율을 시현했다.

한국로타리 설립 7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여론조사는 전국 17지구의 1,043 클럽에서 1998년 12월 첫 주회에서 클럽회장과 총무의 인도아래 시행됐다.

회원의 응답률은 예상했던 5%를 훨씬 능

가하여 9,268명 24%의 뜨거운 관심도를 보였다.

본 조사 응답은 설문에 대한 전체 응답비율과 함께 ① 연령별 ② 로타리안 경험연수별 ③ 로타리 경력별 ④ 남녀별 ⑤ 직업별로 분류해서 응답자의 태도와 의견을 연관 집계하였는 바, 컴퓨터 프로그램 구축과 檢索(검색)작업은 제3기관인 '한빛情報' 가 담당하여 책임 집계하도록 했다.

로타리생활 보람·활동 참여

◇ 요즈음 로타리 생활에 대해?

- ① 보람을 느낀다 31%
- ② 보람을 느낄 때가 가끔 있다 41%
- ③ 실망하고 있다 9%
- ④ 그저 그렇다 19%

◇ 주회 참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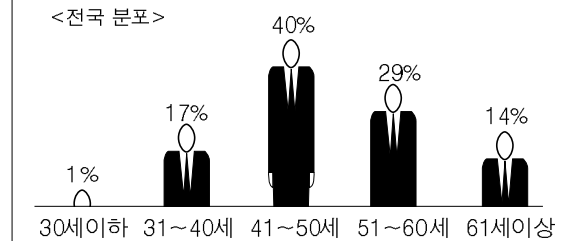
- ① 매주 거르지 않는 편이다 45%
- ②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31%
- ③ 한 달에 한 번 정도 15%
- ④ 가끔 참석 9%

응답회원 분포

제1회 조사(1998.12월)

연령별 항목	전국	6대 도시	기타 지역
30세 이하	248명(1%)	44명(0.4%)	204명(1%)
31~40세	6,623명(17%)	1,217명(10%)	5,406명(20%)
41~50세	15,627명(40%)	4,275명(34%)	11,352명(42%)
51~60세	11,293명(29%)	4,508명(36%)	6,785명(25%)
61세 이상	5,541명(14%)	2,478명(20%)	3,063명(11%)

<전국 분포>



제1회 전국회원 독자 여론조사

로타리코리아誌 받으면
 꼼꼼히 읽는다(19%) + 관심기사 읽는다(57%) **76%**
 제목만 본다...17%, 거의 안 읽는다 7%

로타리코리아誌 지난날과 비교해서
더 좋아졌다 **44%**
 그저 그렇다 32% 더 나빠졌다 7%

공식지역잡지 로타리코리아에 대하여 76%의 한국 로타리안은 관심끄는 기사를 보거나, 모든 기사를 꼼꼼히 읽고 있으며, 반면에 제목만 보거나 거의 읽지 않는 회원이 2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전국 39,042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한 9,268명의 응답회원은 위와 같이 공식지역잡지 로타리코리아에 대해 예상을 뒤엎는 뜨거운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 잡지 내용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서 더 좋아졌다고 높이 평가하는 회원이 44%나 되며, 더 나빠졌다고 하는 회원은 7%에 불과했다.

로타리코리아에 대한 위와 같은 회원반응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여러 갈래의 분석 결과로도 확인됐는데, 종래의 '많은 회원이 잡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무관심했다'는 일반적 通念(통념)을 뒤엎는 놀라운 사실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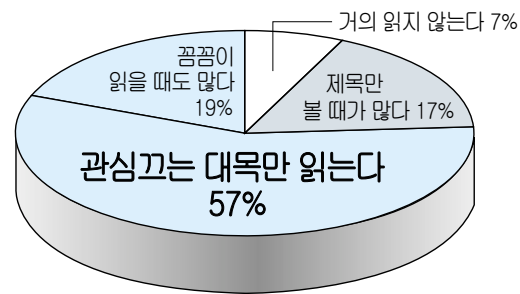
로타리코리아지 관심도

◇ 로타리코리아지는?

- ① 유익하고 흥미있는 읽을 거리가 거의 없다 **7%**
- ②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가 간혹 있는 것 같다 **58%**
- ③ 유익하고 흥미있는 읽을 거리가 상당히 많다 **21%**
- ④ 잘 모르겠다 **14%**

◇ 로코는 얼마나 읽으십니까?

- ① 거의 읽지 않는다 **7%**
- ② 제목만 볼 때가 많다 **17%**
- ③ 관심을 끄는 대목만 읽는다 **57%**
- ④ 꼼꼼히 읽을 때도 많다 **19%**



◇ 로코는 공식지역잡지로서 지난날과 평가 비교해서

- ① 더 나빠졌다 **7%**
- ② 비교적 좋아졌다 **44%**
- ③ 그저 그렇다 **32%**
- ④ 잘 모르겠다 **17%**

◇ 로타리코리아 잡지를 주회에서 받으면?

- ① 표지만 본다 **5%**
- ② 대충 훑어보고 탁자에 두고 간다 **27%**
- ③ 직장으로 가져가서 읽는다 **35%**
- ④ 자택에 가져가서 읽는다 **33%**



로타리생활 誠實度

週會 참석

- 꼭 참석(45%) 두세번 이상(31%)
- 가끔 참석(9%) 한번 정도(15%)

雜誌 읽기

- 꼼꼼히 읽는다(19%) 관심기사만(57%)
- 제목만 본다(17%) 안 읽는다(7%)

로타리생활

- 보람을 느낀다(31%) 가끔 느낀다(41%)
- 그저 그렇다(19%) 실망이다(9%)

적극 參與와 誠實性 分布 거의 같은 比率

① 로타리안 생활에 대한 보람은 ② 週會(주회)참석 頻度(빈도)와 ③ 로타리코리아 잡지에 대한 관심도와 거의 비슷한 比率(비율)로 서로 鏈繫(연계)되고 있음이 드러나 관심과 흥미를 끌게 하고 있다.

로타리코리아誌에 대한 讀者 의견

유익하며 기다려진다 35%
별 도움 안된다 7%

로코잡지에 대한 ‘유익’ 과 ‘기대감’ 평가에 있어서 연령별 반응을 분류하면 젊은 층보다 연배층에 있어서 훨씬 좋은 평가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표에서 보는 바처럼 ‘유익과 기대감’ 은 40세 이하가 28%이지만, 40~60세 층과 60세 이상층은 35%, 42%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은 분명한 생활 속에서 연배층에 비해 독서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로타리코리아지 독자 의견

◇ 로코는 로타리 생활 속에서?

- ① 별로 도움이 안된다 7%
- ② 유익하며 매달 기다려진다 35%
- ③ 그저 그렇다 46%
- ④ 잘 모르겠다 12%

로코에 대한 연령별 평가

항 목	연령별 비교		
	40세 이하	40~60세	60세 이상
① 별도움 안돼	10%	7%	7%
② 기다려진다	28%	35%	42%
③ 그저 그렇다	47%	46%	39%
④ 잘 모르겠다	15%	12%	12%

건강에 대한 기사내용이 단연 최고 관심사인 것은 지난 번 전국 회원의 평균 연령이 만 50세 (6대 도시 52세, 기타 지역 49세)로 파악된 바와 같이 회원 연령층이 대체로 장년기(壯年期)에 접어든 분포임을 생각할 때 건강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은 당연한 귀추라고 하겠다.

◇ 가장 관심 많은 기사

- 1위 건강 32%
- 2위 로타리 지식 29%
- 3위 유머 28%
- 4위 로타리 뉴스 27%

더 실리기 바라는 記事내용

한국로타리 회원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로타리코리아 잡지 편집에 있어 ① 로타리지식 ② 취미·건강 ③ 봉사활동 뉴스 ④ 초대외 글 등 읽을거리 ⑤ 사진과 만화 등이 더욱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전국 회원은 잡지 독서경향에 있어 전항의 조사결과와 같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있는 기사 내용은 ① 건강 ② 로타리 지식 ③ 유머 ④ 로타리 뉴스 순위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잡지 편집에 대해 위와 같은 요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자 중 25%의 많은 회원이 ‘대체로 지금대호가 무난하다’ 고 현재의 편집 내용과 방침에 대해 무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잡지 더 읽기 캠페인’ 큰 成果

회원 51% 찬성, 週會서 매달 잡지 소개 31%

◇ ‘잡지 더 읽기 캠페인’에 대해?

- ① 들은 일이 없다 13%
- ② 캠페인은 별 효과 없을 것이다 18%
- ③ 캠페인에 찬동한다 51%
- ④ 잘 모르겠다 18%

◇ 로코가 새로 나오면 주회에서?

- ① 주회에서 로코 소개는 하지 않는다 24%
- ② 클럽잡지위원이 매달 읽을만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1%
- ③ 클럽잡지위원이 가끔 소개한다 31%
- ④ 관심없어 잘 모르겠다 14%



로코 編輯 ‘대체로 지금대호가 좋다’ 압도적 66%

일부 바뀌야 한다 의견도 17%

◇ 로코의 내용과 편집체제는 ?

- ① 많이 바뀌야 한다 17%
- ② 대체로 지금대호가 좋다 54%
- ③ 아무래도 좋다 12%
- ④ 잘 모르겠다 17%

전국 회원은 현재의 로타리코리아 잡지의 편집 體裁(체제)와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지금대호가 좋다’ 는 의견이 54%의 압도적인 비율로 현행 편집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현재의 편집체제에 대해 ‘많이 바뀌야 한다’ 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회원은 17%에 불과했다.

로코 잡지 '현재 표지 격조가 좋아' 42%

로타리 관련 사진, 미술작품 표지도

더 많이 바라는 기사 내용

◇ 표지에 대해 ?

- ① 로타리 관련 사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27%**
- ② 그림 등 미술작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18%**
- ③ 현재대로 격조가 좋겠다 **42%**
- ④ 아무래도 좋다 **13%**

로타리코리아의 얼굴인 잡지 표지에 대해 전국 회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현재대로의 격조가 좋겠다'고 이제까지의 표지 작성에 찬동하는 독자가 42%의 다수를 점하고 있음이 집계됐다.

이밖에 로타리 관련 사진을 좀 더 많이 표지에 활용할 것을 바라는 회원이 27%, 다음에 그림 등 미술작품을 원하는 회원이 18%여서, 현행 사진 위주의 표지 작성에 대해서 흡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漢字 併記에 모두 찬성 74%

앞으로 本誌 漢字에 한글 붙이기로

◇ 로코의 漢字(한자) 혼용에 대해 ?

- ① 한자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16%**
- ② 한자를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 **15%**
- ③ 지금 정도로 혼용하는 것이 좋다 **59%**
- ④ 아무래도 좋다 **11%**

로코 잡지의 본문기사에 漢字(한자) 사용은 '지금대로 혼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59%, '더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15%로 漢字 使用(한자 사용)에 찬동하는 회원이 74%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반해 '漢字(한자)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잡지 愛讀과 로타리 활동 相關 관계 '적극·긍정 태도'와 '소극·부정 태도' 연관

긍정적(적극적)		부정적(소극적)	
① 로코 잡지는 ? 유익하며 매달 기다려진다	35%	별 도움 안된다	7%
② 잡지 읽는 정도는 ? 꼼꼼히 읽는다 관심기사만 읽는다	19% 57%	거의 안 읽는다 제목만 본다	7% 17%
③ 잡지를 받으면 ? 직장에 가져가서 읽는다 자택에 가져가서 읽는다	35% 33%	표지만 본다 탁자에 두고간다	5% 27%
④ 잡지 내용은 ?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가 상당히 많다 가끔 있다	21% 58%	유익하며 흥미있는 기사가 거의 없다 잘 모르겠다	7% 14%
⑤ 잡지 평가는 ? 지난 날보다 비교적 좋아졌다	44%	지난 날보다 더 나빠졌다.	7%
① 로타리 주회 출석은 ? 꼭 참석 한 달에 두세 번	45% 31%	가끔 참석 한 달에 한 번	9% 15%
② 로타리 생활에 대해 ? 보람 느낀다 가끔 보람 느낀다	31% 41%	실망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9% 19%

